



2015년 7월 2주차

■ 연구원 소식

○ 에프아이솔루션 한응주 이사 방문

: 지난 7월 1일 에프아이솔루션(문헌정보 / 지식정보 DB구축 및 시스템 개발 및 컨설팅 전문기업) <<http://www.fisolution.co.kr>> 한응주 이사가 연구원을 방문하였습니다. 연구원 사업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향후 문화콘텐츠 공동사업에 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 2015년 동북아역사재단 시민단체지원사업(독도사업) 중간심의

- 시간 : 2015년 7월 1일(수) 15시
- 장소 : 동북아역사재단 11층 중회의실
- 내용 : 2015년 동북아역사재단 시민단체지원사업(독도사업) 중간심의
(사업진행 경과, 사업예산 집행 상황에 대해 인터뷰 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 7월 발간 연구원 회지 제호 공모안내

: 연구원에서 7월에 발간 예정인 연구원 회지의 제호를 공모합니다.

연구원의 오늘과 내일에 맞는 제호 응모에 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7월 5일 현재까지 10여개의 제호가 제안되었습니다. 마감인 7월 10일 이후 엄정한 심사를 통하여 회지 제호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선정된 제호를 제출하신 분께는 20만원 상당의 상품권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 마감날짜 : 7월 10일 / 접수 : 문자 또는 이메일

○ 2015년 회원의 날 안내

: 연구원이 문을 연지도 어느덧 9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하기 위해 전주대학교에 새 동지를 틈지도 반년이 지났습니다. 정리가 안 되어 부족한 점이 적지 않습니다만, 새로이 옮긴 연구원에서 강연과 체험행사 등을 중심으로 회원의 날 행사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감염병으로 인해 국가적 재난 상황이 계속되고 있지만 회원의 날 즈음에는 모든 상황이 종료되길 비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선 날짜와 장소를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일정과 내용은 추후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 날짜 : 2015년 08월 22일(토) ~ 23일(일)
- 장소 : 행사(전주대학교 일원), 숙박(초남이 성지)
- 대상 : 한국고전문화학연구원 회원 및 동반자

■ 금주 연구원 주요일정

- 07월 06일(월) : 주간회의(11시), 현장실습생 업무시작
- 07월 07일(화) : 회원의 날 기획회의(11시)
- 07월 08일(수) : 동북아역사재단 독도강의(호남제일고등학교)
- 07월 10일(금) : 법인 월간 업무보고(14시)

■ 역사속의 오늘

○ 남의 뿔달린 악귀, 북의 수령님 가다 - 1994. 7. 8

: 남북분단 이후 반세기가 넘는 동안 김일성은 한국사회에서 이리들을 거느리고 혈벗고 굶주린 민중의 남은 피까지 탐하는 붉은 돼지에다가 때려잡고 초전에 박살낼 대상이었다. (만화영화 뜯이장군을 기억해보시라)

"몽둥이가 필요한 미친 개"로서 특하면 관청 앞 광장에서 불태워지는 허수아비에 붙는 이름이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지는 것은 살아있는 독사의 입에 손을 넣는 것보다 큰 용기가 필요했다.

그는 분명 **보천보 전투를 지휘했고(1937년 6월 5일 동아일보 호외)** 만주 별판에서 일본군과 만주군에 저항하여 싸우던 조선인 유격 대장이었다. 하지만 그는 죽어도 본명이 김성주인 가짜 김일성이어야 했고, 그의 정면 사진을 내거는 것조차 금지되어 있었다. 캐리커처를 그려도 반드시 그 뒤통수에는 흑이 유별나게 강조되어 있어야만 했다.

반도 남쪽에서 그는 완벽한 악마로 표현되었는데 반해 북쪽에서 그는 신으로 숭배의 대상이었다. 장백산 줄기줄기 피어린 자옥에서 피어난 존재였고, 영명히 빛나실 거룩한 이름이었고, 민족의 태양이었고, 일제를 무찌르고 미제의 침략을 분쇄하신 불세출의 영웅이었다.

독립투사 부모 사이에서 태어나 1926년 ㅁ.ㄷ(타도제국주의동맹)를 조직하여 반일 항쟁에 나섰고 만주 별판의 조선인 유격대 지휘관이었다. 하지만 분단된 조국의 한쪽 수장으로서는 전쟁이라는 씻을 수 없는 상처에 대한 책임을 피해갈 수 없는 사람이기도 했다.

국내파, 남로당파, 소련파, 연안파를 모조리 몰아내고 유일체계를 구축하여 2천만 민중의 어버이 수령이 되었던 그는 1994년 7월 8일 그 파란만장한 생애를 끝낸다.

숨을 놓기 전 "내가 다스리는 공화국이 어떻게 이렇게 됐단 말인가."라고 절규했다고 한다. 그의 말년 무렵 북한은 이미 비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그의 죽음은 20세기 막판에 펼쳐진 비극인 '고난의 행군'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과도 같았다.

그의 사후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암울한 나라의 선두로 우뚝 솟았고, 아들에 이어 서른 한 살 된 손자에게 물려진 절대존엄은 육각형의 축구공마냥 어디로 튈지 모르는 불확실성과 두려움으로 커가고 있다.

○ 최초의 노동 야학 문 열다 - 1907. 07. 10

: 1907년 7월 10일 마산에서 '마산 노동 야학'이 문을 연다. 마산지역의 유지로서 민족교육에 뜻을 품은 옥기환, 구성전 두 사람이 자금을 대고 명도석·김명규·나인한·팽삼진 등 청년지식인들이 교사로 참여하여 탄생된 것이다. 국내 최초의 야학이다.

1907년 설립된 마산 노동 야학은 처음에는 마산시 남성동 69에 위치한 조그만 창고를 교실로 사용하면서 출발하였다. 날이 갈수록 학생 수가 늘어나 1914년 10월에는 마산시 창동에 6개의 교실을 갖춘 건물까지 마련하였다.

노동 야학이 번창할수록 일제는 '노동'이라는 학교명에 대해 사상적인 트집을 잡았다. 결국 '노동 야학'이라는 학교 이름을 마산 중앙 야학교로 바꿀 수밖에 없었다. 오늘날의 마산 중앙 중학교와 마산 공업 고등학교는 여기에서 출발하였다. <마산 노동 야학(馬山勞動夜學)> (마산시사, 일제하의 마산과 항일운동)

노동야학이 전국적으로 본격화된 것은 1920년대에 접어들면서부터 이지만 마산의 노동야학은 이보다 훨씬 앞서 설립되었다. 학생들은 대부분 선창 어물상의 피고용인을 비롯한 노동자·농민·빈민의 자제들이었다. 당시의 수업연한은 1년이었으며 조선어를 첫째로 하여 중요과목으로 가르쳤다. 또한 모든 선생들이 애국적이며 선진적인 지식인으로 구성되어 수업내용도 민족의 운명을 걱정하고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을 고취하는 것이 주류를 이루었다. 마산노동야학의 이러한 민주적이고 민족적인 성격은 마산의 3·1 운동에서 이들이 누구보다도 앞장 설 수 있었던 배경을 이루게 되었던 것이다.

세월에 따라 성격도 바뀌었다. 교육의 기회를 박탈당한 이들을 위한 비제도권 교과 교육의 기능을 넘어서 빼앗기고 짓밟힌 권리의 소중함을 깨우치면서 동시에 자신이 가르치는 이들의 경험과 건강성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자 하는 젊은이들도 야학의 깃발을 들었다. 그들은 교사와 학생이 아니라 가르치며 배우는 '강학(講學)'과 배우면서 가르치는 '학강(學講)'으로 서로를 규정하였고, "배워서 남 주는" 삶을 실천하고 전파해 나갔다. 내가 가진 것을 나 자신만의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나보다 처진 이 앞에서 우월감 대신 부채감을 가지며, 누군가를 가르친다는 것조차 교만하게 여겨 오히려 자신의 모자람이 채워짐을 기쁘게 생각했던 마음. 지식의 전달 뿐만이 아니라 왜 우리가 이러한 현실에 처해 있는가를 함께 고민하는 자세가 곧 '연대'의 시작일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단어가 아닐까? '연대' 말이다.